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너희는 누구의 몸에도 눈길을 주지 말아야 한다. 너희 자신을 영혼이라 여기고, 어느 누구의 몸도 보지 마라.

질문: 브라민인 너희 자녀들은 어떤 특별한 측면 두 가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느냐?

대답: 공부와 신성한 미덕들이다. 자녀들 중 일부는 화가 전혀 없는 반면, 나머지들은 아주 많이 싸울 정도로 화를 많이 갖고 있다. 너희 자녀들은 신성한 미덕들을 훈습해서 신인들이 되는 데 관심을 뒤야 한다. 누구에게도 화내며 말하지 마라. 바바가 이르는데, 마음속에 화를 가진 자녀들은 악령들의 주인인 셈이다. 너희는 그런 악령들을 가진 자와는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노래: 나의 행운이 일깨워져서 내가 왔네...

움 산티. 너희 자녀들은 노래를 들었다. 다른 집회에서는 저런 음반들의 뜻을 설명해주지 않는다. 그들은 단순히 경전들을 읽을 뿐이다. 시크교 사원에서는 그란트를 읽는 자들이 그것에서 2줄을 따 가지고 그걸 늘려서 설명한다. 틀어주는 레코드를 설명해주는 곳은 다른 어디에도 없다. 아버지가 지금 설명하는데, 저 노래들 모두가 신봉의 길에 속한다. 지식이 신봉과는 별개이며, 오직 무체인 시바만이 지식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너희 자녀들은 들어왔다. 이 지식은 영적인 지식이라고 불린다. 다양한 지식들이 있다. 누군가는 너희에게 이 카펫(양탄자)을 만드는 방법을 아느냐고 물을 수도 있다.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있다. 그 모든 것은 물리적인 것들이다. 우리 영혼들에게는 영적인 아버지가 단 한 분 뿐이라는 것과 그의 모습을 보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희 자녀들은 안다. 무체인 그 존재의 형상은 살리그람과 같다. 그는 지고의 영혼이라고 불린다. 그는 무체라고 불린다. 그는 인간의 모습을 갖지 않는다. 만물이 반드시 형태를 가지며, 그 가운데 가장 작은 형태는 영혼의 모습이다. 그것은 자연의 경이로움이라고 불린다. 영혼은 이 두 눈으로는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작다. 너희 자녀들은 이제 모든 것을 비전으로 볼, 신성한 눈길을 얻었다. 신성한 시선을 통해서 너희는 과거에 존재했던 이들을 볼 수 있다. 저 사람이 제일 먼저 과거가 되었다. 그가 이제 다시 왔으니 너희들은 그도 역시 비전으로 본다. 그는 매우 미묘하다. 이것에서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 외에는 아무도 영혼들에 대한 지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사람들은 영혼들을 정확하게 모른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지고의 영혼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의견들을 가진다. 영혼들이 지고의 영혼에 합쳐진다고 얘기하는 자들도 일부 있고, 나머지들은 뭔가 다른 말을 한다. 이제 너희 자녀들은 각자의 노력에 따라서 등수대로 이해한다. 이것이 모든 이의 지각에 똑같은 정도로 자리잡을 수는 없다. 너희들은 거듭해서 이것이 너희의 지각에 자리잡게 해야 한다. 우리는 영혼들이며 84생의 배역을 연기한다. 아버지가 지금 이르는데, 너희 자신을 영혼이라 여기고,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인 나를 알고, 나를 기억해라. 아버지가 말하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너희 자녀들에게 지식을 준다. 너희 자신을 영혼으로 간주하지 않는 탓에 너희 자녀들은 이 몸에 시선을 준다. 사실 너희는 이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는 공여자는 시브 바바이며, 그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이에게 행복을 준다. 이 사람은 모든 이에게 행복을 주는 데 대해서 교만이 전혀 없다. 아버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는 자들은 결함들을 없앨 수 없다. 자기들이 영혼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다.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도, 지고의 영혼에 대해서도 모른다. 편재의 개념을 퍼뜨린 것은 바라트 사람들이었다. 너희들 중에서 봉사할 줄 아는 자녀들은 이를 이해하지만, 나머지들은 그 정도로 이해하지 못한다. 만일 너희가 아버지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알아보았다면 너희 자녀들은 그를 기억하고 또 신성한 미덕들도 역시 훈습할 것이다. 시브 바바가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설명한다. 이것은 새로운 측면이다. 브라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프라자피타 브라마의 자녀들이 어느 시대에 존재하는지 세상의 누구도 모른다. 육신의 브라민들은 많지만, 그들은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손들이다. 그들은 입으로 태어난 자손, 즉 브라마의 자녀들이 아니다. 브라마의 자녀들은 신,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는다. 너희들은 지금 그 유산을 받고 있다. 너희 브라민들은 저 브라민들과는 별개다. 너희 브라민들은 합류시대에 존재하는 반면, 저 브라민들은 동시대와 철시대에 존재한다. 합류시대의 너희 브라민들은 전혀 별개다. 프라자피타 브라마에게는 자녀들이 많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들을 창조하기 때문에 그도 역시 브라마라고 불리지만, 그러나 그것은 몸과 관련된 일이다. 이 아버지(시바)는 “영혼들 전부다 나의 자녀들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너희들은 사랑스러운 영적인 자녀들이다. 누구에게든 이것을 설명하기는 쉽다. 시브 바바는 그 자신의 몸을 갖지 않는다. 사람들은 시바의 탄신일을 경축하지만, 그러나 그는 너희가 볼 수 있는 몸을 가지지 않는다. 다른 이들은 모두 다 몸을 가진다. 영혼들 모두 각자의 몸을 가진다. 이름이 붙여지는 것은 몸이다. 지고의 영혼은 자신의 몸을 갖지 않기 때문에 지고의 영혼이라고 불린다. 그 영혼은 시바라 불리며, 그 이름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누군가가 몸을 바꾸면 이름도 역시 바뀐다. 시브 바바가 말하는데, 나는 한결같이 무체인 지고의 영혼이다. 드라마 계획에 따라서 나는 지금 이 몸을 취했다. 심지어 산야시들조차 이름이 바뀐다. 어떤 구루에게 속하게 되면 그의 이름이 바뀐다. 너희들도 역시 이름을 바꿨었는데, 그러나 얼마나 오랫동안 바바가 계속해

서 모든 이의 이름을 바꿔주겠느냐? 참으로 많은 이들이 도망가 버렸다. 그때 당시에 여기에 있던 자들은 이름을 바꾸었다. 지금은 아무도 이름을 바꾸지 않는다. 아무도 신뢰할 수 없다. 마야는 많은 이를 패배시키고, 그래서 그들은 도망친다. 이런 이유로 바바는 아무에게도 새 이름을 주지 않는다. 만일 그가 한 사람에게는 이름을 주고 다른 이에게는 주지 않는다면, 그건 좋지 않다. 너희들 모두가 말로는, “바바, 이제 저희들은 당신에게 속합니다” 라 하지만, 너희들은 바바에게 정확하게 속하지 않는다. 너희들 중에는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바바를 만나려고 오는 자들은 많지만, 그들은 상속자가 아니다. 그들은 승리의 염주에 들어갈 수 없다. 일부 착한 자녀들은 제 자신을 상속자라 여기지만, 바바는 그들이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너희들이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신을 너희의 상속자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비밀들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바바가 너희에게 설명해주마. 신을 상속자로 삼을 때는 너희가 가진 재산을 전부 다 주어야 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너희를 그의 상속자로 삼을 것이다. 오직 가난한 자들만이 이렇게 할 수 있고, 부자들은 재산을 줄 수 없다. 염주는 소수의 자녀들만으로 만들어진다. 만일 너희가 바바에게 묻는다면, 바바는 너희가 상속자가 될 권리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말해줄 수 있다. 이 바바와 더불어 저 바바도 너희에게 말해줄 수 있다. 이것은 이해해야 할 일반적인 측면이다. 너희가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락쉬미와 나라얀이 세계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너희가 볼 수는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너희의 목적과 목표는 지금 너희들 앞에 있다. 너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자녀인 너희들은 달 왕조의 라마나 시타가 아닌, 태양왕조의 락쉬미나 나라얀이 되겠다고 말한다. 라마와 시타는 경전들에서 명예를 훼손당한 다. 락쉬미와 나라얀에 대해서는 너희가 비방을 들어본 적이 결코 없을 것이다. 시브 바바와 크리슈나에 대해서는 비방이 있다. 아버지가 말하는데, 나는 너희 자녀들을 전체에서 가장 고결하게 만든다. 너희 자녀들은 심지어 나보다도 더 높아진다. 아무도 락쉬미나 나라얀을 비방하지는 않을 것이다. 비록 크리슈나 영혼이 나라얀의 영혼과 동일하지만, 이를 모르는 탓에 사람들은 그를 비방해왔다. 그들은 지극히 행복해하며 락쉬미와 나라얀의 사원을 짓는다. 사실 라테와 크리슈나가 사토프라단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에게 사원을 지어줬어야 마땅하다. 이들(락쉬미와 나라얀)은 그들이 어릴 때이크로 사토라고 불리는 반면, 그들(라테와 크리슈나)은 어렸으므로 사토프라단하다고 불린다. 어린 아이는 마하트마와 동등하다. 어린 아이들이 악덕이 뭔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서는 어른들도 악덕이 무엇인지 모른다. 거기에는 이 다섯 악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악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 현재는 밤이다. 정욕에 대한 욕구는 오직 밤에만 있다. 신인들은 낮에 존재하므로 거기서는 정욕에 대한 욕구가 없다. 거기에는 악덕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은 밤이기 때문에 모든 이가 악덕에 탐닉한다. 아침이 오자마자 너희의 모든 악덕이 끝나리라는 것을 너희들은 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악덕이 뭔지 모를 것이다. 그것은 라반의 사악한 기질들이다. 이것은 사악한 세계다. 악덕 없는 세계에는 악덕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신의 왕국이라고 불린다. 지금 현재는 악마의 왕국이지만 아무도 그것을 모른다. 이제 너희들은 각자의 노력에 따라 등수대로 모든 것을 다 안다. 너희 자녀들은 수가 많다. 브라마 쿠마르, 쿠마리인 너희가 누구의 자녀인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 그들 모두 시브 바바를 기억한다. 그들은 브라마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 사람도 역시 말하는데, 시브 바바를 기억해라, 그를 통해서 너희의 죄가 모두 없어진다. 다른 누구를 기억해도 너희의 죄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기타에도 ”끊임없이 나 하나만 기억해라!”라고 쓰여 있다. 크리슈나는 이 말을 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무체인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는다. 오직 너희 자신을 영혼이라고 여겨야만 너희가 무체인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먼저 너희가 영혼이라는 것과 너희들의 아버지가 지고의 영혼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져라. 그가 이르는데, 나를 기억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유산을 줄 것이다. 나는 모든 이에게 행복을 주는 공여자다. 나는 모든 영혼들을 데리고 평화의 나라로 돌아간다. 지난 사이클에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차지했던 자들은 와서 브라민이 되어 자기들의 유산을 다시 차지할 것이다. 브라민들 중에서도 일부는 매우 확고한 자녀들이다, 자녀들 가운데 친자녀들과 의붓자녀들이 있다. 우리는 무체인 시바의 자녀들이다. 계보가 어떻게 자라는지 너희들은 안다. 이제 브라민이 되었으니 우리는 집에 돌아가야 한다. 영혼들 모두가 각자의 몸을 떠나 집에 돌아가야 한다. 판다바들과 카우라바들, 양쪽 모두 몸을 떠나야 한다. 너희들은 지식의 산스카르들을 가져가고, 그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그것도 역시 드라마에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는 드라마에서 지식의 역할이 끝에 도달한다. 84생을 취하고 난 지금 너희는 이 지식을 다시 받고 있다. 이 지식은 그 다음에 사라질 것이고, 너희는 보상을 경험할 것이다. 거기에는 다른 종교의 그림이 없다. 신봉의 길에서 너희는 그림들을 가진다. 황금시대에는 어느 누구의 그림도 없다. 너희의 그림들은 신봉의 길에서 내내 존재한다. 너희의 왕국에는 다른 그림들은 아무것도 없다. 그때에는 오직 신인들뿐이다. 이것에서 신인들이 본래의 영원한 이들이라는 것을 너희는 이해할 수 있다. 세상은 그 후에 계속 커진다. 너희 자녀들은 이 지식을 되

새기며 초감각적인 기쁨 속에 머물러 있어야 마땅하다. 되새겨야 할 요점들이 많다. 그러나 마야가 너희를 거둬 잊게 만든다는 것을 바바는 안다. 시브 바바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는 높은 중에서 최고로 높다. 우리는 이제 집에 돌아가야 한다. 이런 것들은 참 쉽다! 모든 것이 기억에 달렸다. 우리들은 신성한 미덕들을 훈습해서 신인이 되어야 한다. 5악은 악령들이다. 정욕, 화, 육체의식의 악령들이 있다. 물론, 남들보다 악령들을 더 많이 가진 자들도 일부 있다. 이 5악이 끔찍한 악령들이라는 것을 너희 브라민 자녀들은 안다. 악령 중에서 1등이 정욕이다. 2등은 화다. 누가 난폭하게 말을 하면 아버지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화가 있다고 얘기한다. 그 악령을 없애야 된다. 악령을 제거하기는 무척 어렵다. 화로 인해 슬픔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다. 애착을 통해서도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슬픔을 겪지는 않고, 오직 애착을 가진 자들만 슬픔을 경험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설명하는데, 그 악령들을 쫓아버려라! 자녀인 너희들은 각자 공부와 신성한 미덕들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화의 흔적조차 전혀 없는 자녀들이 일부 있는 반면, 나머지는 화 때문에 많이 싸운다. 너희 자녀들은 신성한 미덕들을 훈습해서 신인들이 되겠다고 생각해야 한다. 결코 화내며 말하지 마라. 어떤 이가 화를 내면 그 사람 마음속에 화라는 악령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라. 그들은 마치 악령들의 주인이 되는 것과 같다. 그런 악령들을 가진 자들과는 절대로 말을 하지 마라. 누군가 화를 내며 말해서 악령이 상대방에게도 들어가면, 두 악령이 서로 싸운다. “악령을 가진 부인(부트나트니)”라는 표현은 아주 더럽다. 그 악령이 너희들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사람과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 악령 앞에 계속해서 서 있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사악한 기질들을 없애고 신성한 미덕들을 훈습할 수 있게 해주려고 아버지가 왔다. 아버지가 말하는데, 너희가 신성한 미덕들을 훈습하게 해서 신인들로 만들려고 내가 왔다. 너희가 신성한 미덕들을 훈습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 자녀들은 안다. 신인들의 형상이 너희들 앞에 있다. 화를 가진 자들에게서는 완전히 떨어져 있으라고 바바가 이미 너희에게 일러주었다. 너희들 자신을 보호할 지혜가 필요하다. 너희의 내면에 화가 전혀 없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죄가 백 배로 늘어날 것이다. 아버지는 아주 알아듣기 쉽게 너희 자녀들에게 설명한다. 바바가 지난 사이클과 정확하게 똑같이 너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너희 자녀들도 역시 이해한다. 너희 자녀들은 각자의 노력에 따라 등수대로 계속 이해할 것이다. 너희들 자신과 또 남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라. 남들에게는 자비를 베풀면서도 제 자신에게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도 일부 있다. 그렇게 되면 그들 자신은 뒤에 쳐져 있는 동안에 남들은 높이 올라간다. 그들은 5악을 정복하지 않고서 남들에게만 설명한다. 그래서 남들은 그 다음에 5악을 정복한다. 그런 놀라운 일들도 있다! 앗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사랑과 기억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마스떼라고 말한다.

실천 요지:

1. 지식을 되새기고 초감각적인 기쁨 속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누구에게도 난폭하게 말하지 마라. 화를 내며 말하는 사람에게는 떨어져 있어라.
2. 신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를 너희의 상속자로 만들어라. 지각 있게 되어서 너희에게 속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줌으로써 모든 애착을 끝내라. 너희 자신에게 자비를 가져라.

축 복: 진실, 청결함, 두려움 없음을 토대로 계시를 가져오는, 즐거움을 주는 요기가 되어라.

신을 드러내는 계시의 토대는 진실이며, 진실의 기반은 청결함과 두려움 없음이다. 어떤 유형의 것이든 불결함이 있으면, 즉 정직성과 청결함이 부족한 경우나, 너희의 타모구니한 산스카르들에 승리를 거두는 데나 산스카르들을 조화시키는 데 대해서 아니면 세계 봉사의 현장에서 너희들의 원칙을 증명하는 데 뭔가 두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계시가 일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진실과 두려움 없음을 훈습하고 즐거움을 주며, 단 하나의 관심에 도취되어 있는, 쉬운 요기가 되어라, 그러면 마지막의 계시가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슬로건: 무한한 시선과 태도는 단결의 토대다. 그러므로 한정된 것 안에 머물러 있지 마라.

*** 움 산티 OM SHANTI ***

아비약트의 달인 이 달에 아비약트 단계를 경험하기 위한 특별 과제.

너희가 비록 평범한 행위를 행하고 있을 때에도 시시때때로 아비약트 단계를 만드는 데 주의를 기울여라. 어떤 과제를 이행하고 있을 때는 밥다다를 너희의 동반자로 여기며 항상 곱절의 힘으로 그 일을 행해라, 그러면 쉬운 기억이 있을 것이다. 물리적인 활동을 위한 계획을 세우면서도 너희의 지각을 위한 프로그램도 역시 세워라, 그러면 시간이 절약될 것이다.